

함께 드리는 대림절 기도문 3

- 길을 예비하라 -

2020년 1월 3일

길 예비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도래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책임을 부여하는 임무입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빵이 필요하고, 노숙자에게는 집이 필요하고, 권리를 빼앗긴 자에게는 정의가 필요하고, 고독한 자에게는 사귀이 필요하고, 방종에 빠진 자에게는 질서가 필요하고, 노예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굶주리는 자를 굶주리게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큰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듯이 굶주리는 자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굶주리는 자와 빵을 나누며 집을 나눕니다. 만약 굶주리는 자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책임은 그에게 빵을 거절한 자에게 돌아갑니다. 굶주린 자에게 빵을 제공하는 것은 은혜의 도래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윤리학』, “궁극적인 것과 궁극 이전의 것 中)

대림절은 어떤 확정된 날짜와 시간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날과 그 시간에 관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열 처녀의 비유(마25:1~13)를 들려주셨습니다.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들이닥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쁜 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 밖에서 슬피 울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날과 그 시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설령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있다고 해도, 지금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맞는 그날은 오히려 재앙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겠지요. 일찍이 아모스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고통 중에 애타게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무슨 수라도 날 듯 싶으냐는 것입니다. 예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은 마치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꿈을 맞닥뜨리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심하고 벽을 짚었다가 뱀에 물리는 것과 같다(암5:19)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날을 예비하느냐, 예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예비해야 한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얼마나 대단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세상의 보화를 모두 모아서 하늘 사다리라도 만들어야 할까요?

그날을 예비하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길의 예비는 추상적인 어떤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빵이 있습니다. 이 빵은 그저 별 볼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있는 빵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빵을 굶주리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¹⁾

1) 책 : 본회퍼와 함께 기다리는 성탄 (대림절묵상집) / 출판사 : 대한기독교서회 / 출간일 : 2017.11.5. / 14~15쪽